

인간 대상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SES) 변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Problems and their Overcoming Ways of Socioeconomic Status in Human Related Research

채 정 민*

서울사이버대학교

Chae, Jung-Min*

Seoul Cyber Univ.

요약

사회경제적 지위(혹은 위상) 개념이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특장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이 지표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직업, 교육수준, 수입, 빈곤 수준, 부의 수준, 가족구조(가족 수), 사회적 통합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물질적 생활 조건, 가계소비단위당 수입,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만족, 밀집도, 공적 지원수준 등이 있다. 이들 지표들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측정한 후 지표들을 따로 따로 하나씩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이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 지표 한 두 개를 사용하려면 SES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 개념을 적용하려면 이들 개별 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통합된 지수 형태로 사용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에서 이들 지표들 중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통합적 지표로 사용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I. 서론

사회경제적 지위(이하, SES로 표시함)라는 개념은 영어로 'socioeconomic position', 'social class'와 같은 용어로도 표현된다. 그리고 이 SES는 처음 Baker(1784)[1]가 제시할 때,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조합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사회학에서 제시되어 현재는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심리학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적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아동의 지능이 SES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라는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이 SES는 심리학에서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심리환경적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아동 자신의 SES 대신 부모의 SES를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모의 SES를 왜 단순히 2개의 하위 요인만으로 보는가 등의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II. SES 개념 포함 연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SES 개념 포함 연구의 문제점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SES 개념을 포함한 연구들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SES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연구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지수 산출 방식이 올바르게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여러 연구에서 나온 수치와 분석 내용 등을 직접 비교하고 연구 결과들을 일관되게 체계화해서 학문화 하기가 어렵게 된다. 셋째, SES 개념이 국가나 문화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도 국가간, 문화간 비교가 어렵게 된다.

2. SES 개념의 구성요인

SES 개념은 초기에 제안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하위 요인만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즉, 최소한 학력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McLaren(2007)[2]은 1988~2004 기간에 ABI Inform, Business Source Premiere, CINAHL, EMBASE, ERIC, MEDLINE, PsychInfo, and Social Science Abstracts에 발표된 연구물들에서 SES의 하위 요인들을 확인했는데, 주로 고용상태, 교육수준, 소득, 빈곤 수준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Duncan, Daly, McDonough, Williams(2002)는 부(Wealth)를, Sirin(2005)은 아동을 대

상으로 연구하면서 가족 구조를, Adams, Hurd, McFadden, Merrill, Ribeiro(2003)는 사회통합의 수준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Lynch, Kaplan, Cohen, Tuomilehto, Salonen(1996)은 주택 자가보유 여부, 물질 생활 여건이라는 물질 변수를 추가로 사용하는 등 여러 요인들이 사용되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직업, 교육수준, 수입, 빈곤 수준, 부의 수준, 가족구조(가족 수), 사회적 통합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물질적 생활 조건, 가계소비단위당 수입,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만족, 밀집도, 공적 지원수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수준 평가 등 15개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들 중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요인은 직업, 교육수준, 수입, 빈곤 수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수준 평가라고 볼 수 있다.

3. SES 개념의 지수 산출방식

그동안 SES 개념에 대한 지수 산출방식은 단일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해당 하위 요인들의 점수로 각각 다루는 경우도 있고, 이들 요인들의 총합 점수로 다루는 방식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수준 평가를 위해 한 문항으로 측정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하위 요인이 따로 없으므로 이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이 '사회경제적 수준'이라는 말을 응답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해하고 반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해당 하위 요인들의 점수로 산출하여 다루는 경우는 원래의 SES 개념을 오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하위 요인들의 총합 점수로 다루는 경우는 옳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산출식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Cohen, Doyle, Baum(2006)[3]이 제시한 산출공식을 약간 변형하여 표준 산출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총합 SES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소득과 교육수준 각각에 대해 표준점수를 구해서 이들을 합산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산출식에 포함된 하위 요인이 2개에 국한되므로 위의 핵심적인 개별 하위 요인 4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산출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산출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하위요인 간 상호작용에 의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와 제3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Twenge, Campbell(2002)[4]은 SES로서 교육 수준, 직업 상태, 소득을 따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종합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SES 지표들이 연령, 성별, 인종별, 문화별 중재변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SES 지표들이 상호 분리되어 있고,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서로 상관되어 있는 경

우들이 많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변량(covariation)을 제거한 후 최종 점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출식을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4. SES 개념의 문화 관련성

SES 개념이 문화와 관련될 수 있음은 이미 Twenge 등(2002)이 제시했다. Cox, McKevitt, Rudd, Wolfe(2006)도 SES 개념의 하위 요인으로 주거와 물질 소유 상태를 측정할 때 국가적 차이가 드러났다고 제시했다. 즉, 국가별로도 SES 지표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다른데,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많이 쓰이고, 영국에서는 직업적 사회 계급이 더 많이 쓰인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한 문화 내에서도 시대가 다르면 SES의 하위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들이 다를 수 있음을 연구에서 반영해야 한다.

II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SES 개념이 인간 대상 연구 중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될 때 문제점을 확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SES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한데, 총 15개의 요인 중심으로 연구가 되며, 둘째, 지수 산출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ohen 등(2006)의 산출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이 개념이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참고 문헌 ■

- [1] Baker, E. H., "Socioeconomic status, definition",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Health, Illness, Behavior, and Society, 1784.
- [2] McLaren, L., "Socioeconomic status and obesity", *Epidem. rev.*, Vol. 29, No. 1, pp.29-48, 2007.
- [3] Cohen, S., Doyle, W. J., & Baum, A., "Socioeconomic status is associated with stress hormones". *Psychosom. med.*, Vol. 68, No. 3, pp.414-420, 2006.
- [4] Twenge, J. M., & Campbell, W. K., "Self-esteem and socioeconomic statu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 and soc. psycho. rev.*, Vol. 6, No. 1, pp.59-71, 2002.
- [5] Hackman, D. A., & Farah, M. J.,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developing brain", *Trends in cogn. scien.*, Vol. 13, No. 2, pp.65-73, 2009.